

보도시점 배포 즉시 배포 2026. 6. 16.(화)
(사진 15:00 이후)

혁신기업, 세계무대 진출 가속...조달청-KOTRA '수출 원팀' 구축

- 조달청이 발굴한 혁신기업들 코트라의 글로벌 네트워크 적극 활용하게 될 전망

조달청(청장 백승보)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강경성, '이하 KOTRA')는 16일 서울 서초구 소재 KOTRA 본사에서 '혁신제품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혁신제품의 해외실증과 수출지원을 연계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사진 별첨>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혁신제품 수출선도형 시범구매 협업 △혁신제품 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판로개척 △시범구매 이후 혁신제품의 후속 수출을 위한 지원 등에 적극 협력하게 된다.

조달청의 혁신제품 발굴 역량과 수출전문기관인 KOTRA의 글로벌 네트워크의 결합은 혁신제품과 우리기업의 해외 진출의 속도와 범위를 더욱 확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전세계 80여개국 130여개의 무역관 및 조직망을 운영하고 있는 KOTRA의 강력한 해외 네트워크 및 수출지원 경험과 역량은 조달청 혁신기업들의 판로 확보와 실효성 높은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조달청은 혁신적 기술을 가진 벤처창업기업들이 해외 조달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조달청이 혁신제품을 시범구매해 해외 공공기관에 제공하여, 제품을 직접 시범 사용해 보도록 하는 해외실증사업은 우리 중소기업, 혁신기업의 수출을 선도하고 있다.

해외실증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의 연도별 평균 수출 금액은 2019년(31만 달러)에서 지난해(124만 달러)로 4배 이상 증가하는 등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혁신제품 해외실증은 기업의 신뢰도를 높이고 제품의 기술력과 품질을 인정받아 추가 수출로 연계될 수 있는 확실한 수출 지원 제도”라고 강조하며,

“KOTRA와의 협력을 통해 우리 혁신기업이 세계시장으로 도약하고 글로벌 공공조달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혁신조달기획관 혁신조달운영과	책임자	과 장	이정민	(042-724-6020)
		담당자	사무관	남유환	(042-724-6023)

